

고기고로케부터



점심 사러 나온 시간 11시  
치킨 나온 시간 10시  
이건 못 참지

편의점 아주머니께서 전자레인지 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먹어보니 1시간 지난 거라 생각한 것처럼 따끈하진 않았다.  
지금 보니 고기고로케 서체 되게 느낌있다.



쌀국수 물 넣고 전자레인지 조리하는 동안 고기고로케를 먹어보기로 했다.



맛있겠당

고기고로케는 튀김이 적당히 바삭하고 딱딱함과 눅눅함 사이 적절한 식감이라 좋았다.

고추, 파가 들어갔는지 속이 살짝 붉은 기를 띠고 간간히 초록색이 보인다.

아주 살짝 매콤해서 기름진 맛을 잡아준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돼지고기, 소고기 들어갔는데 사실 구분은 못하겠고 그냥 맛있다 ㅎㅎ

앞서 말한 것처럼 딱딱하진 않아서 데울까 하다 귀찮아서 그냥 먹었는데

'엄청 맛있다'는 아니어도 가격(1000원) 대비 괜찮아서 삼김처럼 생각나면 사 먹을 것 같다.

다음은 쌀국수





소스를 넣고 뜨거운 물을 표시선까지 부은 후, 전자레인지 조리

ㅇㅇㅇㅇ



이제보니 뭔가 스노우맨 얼굴 같이 생김  
찍을 때 알았으면 모양 맞춰서 찍었을텐데

?

갈색 소스, 적색 소스 중 무슨 소스를 넣으라는 건지  
취향껏 넣으라는 건지, 둘 다 넣으라는 건지 헷갈렸다.  
+ 뚜껑을 열고 조리하는 건지 닫고 조리하는 건지

얼핏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고 안 적어도 될 것 같은 사항인데  
이게 은근 헷갈리고 신경 쓰인다.  
다른 편의점 음식의 표기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편의점 음식 설명이 조금만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다.  
글자 조금 더 넣으면 소비자들이 훨씬 편해지고 그만큼 더 많이 사먹지 않을까?



보통 뚜껑 닫고 전자레인지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했더니 문제 없었다.  
가운데 송글송글 모인 물방울 예쁘다.



포장지 성분표를 보니 붉은 소스는 스리라차 소스, 갈색은 쌀국수용 소스라서  
쌀국수용 소스와 안에 동봉되어 있던 쪽파, 숙주나물, 소고기 양념육, 레몬을 국물에 붓고 섞어 먹었다.  
스리라차 소스는 따로 면 찍어먹고!

쌀국수 특유의 향이 강하게 났는데, 호불호가 강해서 그런지 고수가 들어간 것 같진 않았다.  
가격(3900원)도 괜찮고, 가게 가서 사먹는 느낌이라 만족스러웠다.





원래 소스 통에 면 넣고 남은 소스와 비벼서 먹어주는 게 국룰이다.  
그대로 먹으니 당연하게도 찐다... 그대로 국물에 넣어줄걸 그랬다.

똑같은 방식으로 스리라차 소스 통에 면 넣고 먹다가 얹을 뻔 했는데  
다행히 스리라차 소스가 전문물처럼 잘 안 흘러서 참사를 면했다.



예전에는 저런 레몬 과육이나 껍질까지 다 뜯어먹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안 먹고 있다. 이제 나름 먹고 살 만 하다 이건가 ㅋㅋㅋ  
어쨌거나 잘 먹었다~